

보도자료

2010년 5월 27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미래인터넷팀 조해근 과장(☎750-2790)
미래인터넷팀 이정아 사무관(☎750-2794) yca@kcc.go.kr

방통위,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그린 IPTV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KT, SK브로드밴드 2개 컨소시엄과 협약체결, 서비스 개발 착수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IPv6기반 그린IPTV 서비스 클라우드 테스트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KT 컨소시엄,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IPTV 플랫폼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개방형 플랫폼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게 되며, 총 37억여원의 민관 공동매칭(1:1)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IPTV 플랫폼이 구현되면 셋톱박스의 성능에 상관없이 3스크린 환경에서 양방향서비스와 그린 IT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IPv4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IPv6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해 올 10월부터 시범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구축된 플랫폼에서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버 기반의 게임 서비스, VOD 시맨틱 검색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되며, 저사양의 셋톱박스에서도 구현 가능해 IT자원 사용의 효율화와 그린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해근 미래인터넷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그린 IPTV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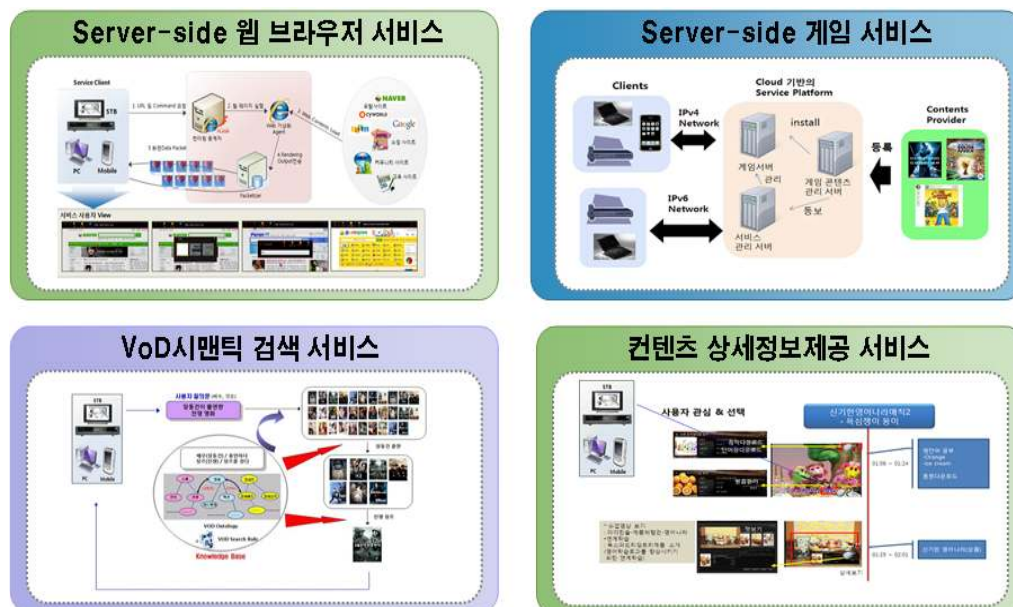
그린 IPTV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 KT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업체 : KT, 아람정보통신, 넥스트 브릿지

○ 사업 개요

- (Server-Side 웹 브라우저 및 게임 서비스) 셋탑박스, Mobile Device, PC에서 기 제작된 Web 콘텐츠 이용 가능하여, 저사양의 다양한 단말에서 고품질 양방향 서비스 제공
- (VOD 시맨틱 검색 및 콘텐츠 상세정보 서비스) 사용자가 VOD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으며, 동영상내 특정 관심 객체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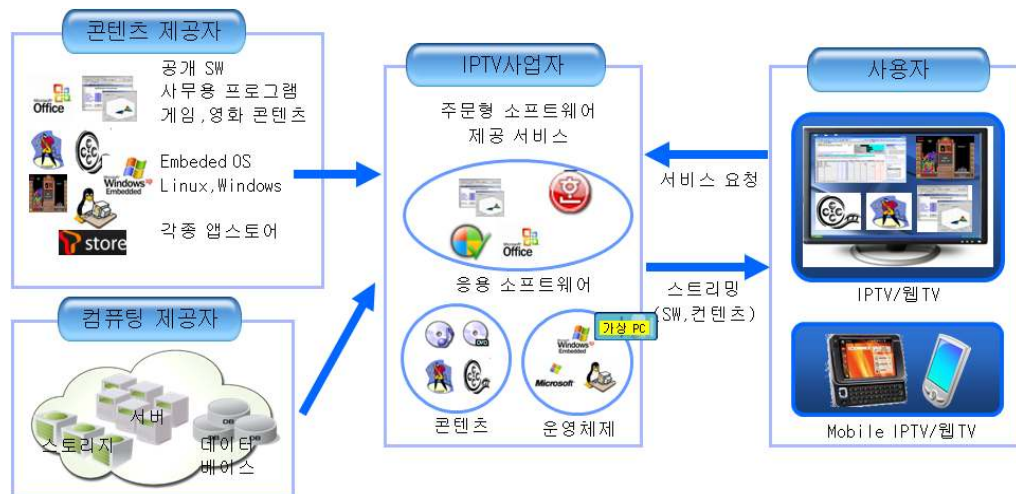
※ 담당자 : 백규태 부장(KT 중앙연구소), 526-5083

□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

o 컨소시엄 구성업체 :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미디어, 4Csoft, 세너틱스, 엔시스템

o 사업 개요

- Cloud 기반의 IPTV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IPTV Windows Desktop, Multi Platform Application Support 등 다양한 융합 콘텐츠 제공 가능
- 일반 PC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 브라우저, 메일 및 오피스 서비스 및 콘텐츠를 IPTV 셋탑박스를 통해 사용 가능



※ 담당자 : 유승우 매니저(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부문) 6100-7497